

[사회]

“4개댐 방류량 늘려야

〈장성·담양·광주·나주댐〉

영산강 수질 맑아진다”

광주천 비만 오면 유해 박테리아 미 기준치 50배 이상 검출

‘영산강 포럼’서 지적

김 교수에 따르면, 담양댐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소수력 발전을 시작하면서 하천 유지 유량을 최소 초당 0.4m에서 최대 3.5m까지 방류한 결과, 갈수기인 3~4월 중 월 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크게 줄어드는 하구둑에서 담양댐까지 영산강 전 구간의 수질이 개선됐다. 특히 영

본B(학산)지점의 2006년 3월 BOD는 2004년·2005년 평균인 l 당 12.75mg에서 6.85mg이 감소한 5.9mg으로 격감했다. 4월에도 동일 지역의 BOD 값이 l 당 14.35mg에서 9.5mg으로 낮아졌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4개 댐의 추방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한 결과, 4개 댐에서 11월~12월 6.31 m^3/sec →1월~2월 1.84 m^3/sec →3월~4월 9.41 m^3/sec 으로 방류할 경

우 영산강 마복지점(극락교)은 21.2%, 영본 B지점(학산)에선 43.9%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농업용인 저수량이 원래대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4개 댐의 방류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댐 운영 시스템을 바꿔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연구원도 ‘영산강 살리기 정책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4개 댐의 하천유지 방류량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주담댐에서 남는 물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필요한 물값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상류 4개 댐의 하천 유지수 의무 방류량은 초담 ▲장성댐 0.19~0.78 m^3 ▲나주댐 0.09~0.47 m^3 ▲담양댐 0.05~0.43 m^3 ▲광주댐 0.02~0.18 m^3 등이다. 한편 김 교수는 “생활하수와 빗물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합류식 하수관과 연결된 광주천의 경우, 비만 오면 하수가 넘쳐나 대장균이 수거 미국 환경기준치의 50배 이상 검출됐다”며 “비 온 후나 해가 진 후 시민들의 광주천 출입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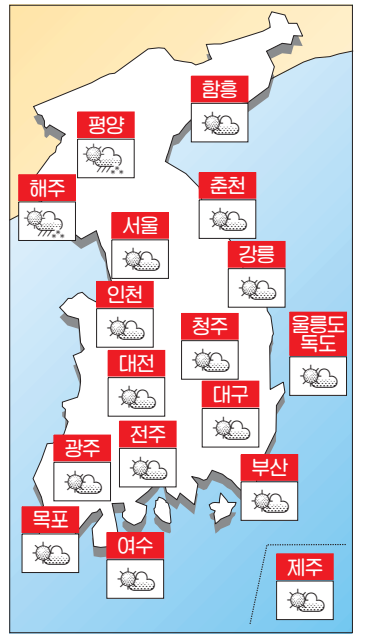
/김정주기자 jnews@kwangju.co.kr

완연한 봄

맑은후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3월 26일 (음 2월 8일) <전국날씨>

광주	맑은후 구름많아짐	4~20℃
목포	맑은후 구름많아짐	5~18℃
여수	맑은후 구름많아짐	7~18℃
순천	맑은후 구름많아짐	3~20℃
해남	맑은후 구름많아짐	1~21℃
홍천	맑은후 구름많아짐	0~21℃
고흥	맑은후 구름많아짐	2~19℃
영광	맑은후 구름많아짐	0~21℃
영암	맑은후 구름많아짐	4~18℃
진안	맑은후 구름많아짐	1~19℃
전진	맑은후 구름많아짐	3~20℃
완주	맑은후 구름많아짐	1~20℃
임실	맑은후 구름많아짐	3~20℃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7:51 썰물 < 13:11
여수 밀물 < 02:32 썰물 < 09:12

▲해돋이 06:29	▲해질녘 18:48	▲달돋이 11:35	▲달짐 02:0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4/1(일)
날씨						
최저/최고	7/16	5/18	6/19	8/20	10/16	8/17

아파트 옥상 문 자동개폐로 바뀐다

광주시, 화재 대피 쉽게 신규 아파트 설치 의무화

아파트 관리인이 수동으로 열고 닫았던 옥상 출입문이 자동개폐방식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25일 “불이 났을 경우 옥상 대피가 용이하도록 신규 아파트 옥상출입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옥상은 화재 발생 시 피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도난·추락사고·정소년 비

행 방지 등을 위해 상시 잠금장치를 해두고 출입을 막아왔다. 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자동개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이 자동개폐시설을 하면 화재 등 비상상황 시에는 자동으로 문을 열도록 해 대피가 용이하고,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를 유지해 도난·추락 등도 막을 수 있다.

/김정주기자 jnews@kwangju.co.kr

교육감 선거 없다고 이렇게 다를까? 을 학운위원 대부분 무투표 당선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올해는 지원자가 거의 없어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등 크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285개 학교(초등 136, 중 83, 고등 61, 특수 5)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한창이다. 위원 수는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 학교당 평균 11~12명으로 모두 3천200여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학운위원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부모수봉사직인데다 생업에 쫓겨 협사리 ‘학부모위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많지 않아 정수 채우기까지 버거운 실정이다. K초교의 경우 학부모위원 희망자가 없어 지난해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자 학생회 일원 부모들을 중심으로 가가스로 정수

(6명)를 채웠다. C중도 마감시간 지나도록 지원자가 2~3명에 머무르자 지난해 학부모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어렵사리 6명의 정원을 맞췄다. 지원자에 대한 검증은 뒷전인 채 선거는 무투표 당선으로 마감되고 있다. 지난해 7명 정원에 10여명의 학부모가 경쟁한 H초교도 올해는 정원을 겨우 채웠고 투표나 정권발표 등은 아예 생략됐다. 북구 D초교를 비롯, 광산구 Y초교·남구 Y초교·북구 D중도 무투표 선출로 정원을 메웠다. 교사위원회 사정은 언뜻보면 선출이 아닌 위촉방식으로 일부 교사를 학운위에 수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초교의 경우 학운위원은 “지난해 교육위원·교육감 양대 교육선거의 경우 학운위에 의한 마지막 간접선거여서 입지자가 많았지만, 올해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계산이 깔려선지 순수 봉사자를 찾기가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사진에 담은 날씨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 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기상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진전은 기상과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세계기상기구 제공 사진 등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gwangju.kma.go.kr)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불법 전조등 보면 ‘3초간 장님’

운전자 시력 상실...정지거리 14m 늘어나

규격 전조등보다 3배나 밝은 불법 고휘도방전(HID) 전조등은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력 상실을 일으켜 정지거리가 14m 늘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학 부설 삼성교통안전보호연구소는 규격 전조등 2종과 불법 전조등 6종의 광도와 시력회복 시간 등을 실험한 결과, HID 전조등의 광도는 7천553칸델라(1축=1.067cd)로 안전기준을 무려 17.2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황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과 청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 등 다른 불법 전조등의 광도 역시 안전기준을 4.5~12.1배 초과했다. 규격 전조등은 271칸델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 국도를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들의 시력 회복시간을 평가한 결과 불법 전조등이 3.0초로 규격 전조등의 2.2초보다 40%가량 시력 회

복시간이 길었다. 이는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제동을 할 때 최종 정지거리가 14m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운전자 35명을 대상으로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HID 전조등은 일시 시력 상실 또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격 전조등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연구소 관계자는 “불법 전조등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일시적 시력상실을 초래하고 눈부심 회복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면서 “경찰의 단속과 함께 자동차 등화장치 부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북구청 지방재정 분석 평가 3년연속 ‘우수’

광주시 북구청(구청장 송광운)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6년도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청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세출관리, 재정관리, 재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6개 분야 31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6일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재정정보 공개 세출구조 조정 등의 정책이 예산 편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성경비 감축 등에 실효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석평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평가, 시상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제 불꽃 박람회 30일부터 광주서

‘2007국제불꽃박람회’가 오는 30일부터 4월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중국·일본 정

원, 야생화, 분재, 꽃꽂이, 토파리, 허브약초, 선인장, 실내정원 등 12개 테마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야외 불꽃 정원, 화훼 수출을 위한 학술대회, 불꽃 ART 초대작전, 전국 화훼장식 기능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정주기자 jnews@kwangju.co.kr

(제5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자	4,839,274,479	자산	4,839,274,479
1.유동자산	4,288,370,451	1.유동부채	1,000,000,000
2.비유동자산	550,904,028	2.비유동부채	3,839,274,479
3.현금및현금성가	151,460,284	3.1.현금	151,460,284
4.예수금	715,253	4.1.예수금	715,253
5.미수금	4,842,129,000	5.1.미수금	4,842,129,000
6.미수입금	575,745,471	6.1.미수입금	575,745,471
7.미수입금	2,434,417,298	7.1.미수입금	2,434,417,298
8.미수입금	33,870,904,027	8.1.미수입금	33,870,904,027
9.미수입금	29,987,702,896	9.1.미수입금	29,987,702,896
10.미수입금	6,715,605,975	10.1.미수입금	6,715,605,975
11.미수입금	28,945,288	11.1.미수입금	28,945,288
12.미수입금	2,847,400,835	12.1.미수입금	2,847,400,835
13.미수입금	2,528,278,828	13.1.미수입금	2,528,278,828
14.미수입금	1,500,000	14.1.미수입금	1,500,000
15.미수입금	115,689,921	15.1.미수입금	115,689,921
16.미수입금	205,130,000	16.1.미수입금	205,130,000
17.미수입금	2,200,249,022	17.1.미수입금	2,200,249,022
18.미수입금	121,283,877	18.1.미수입금	121,283,877
19.미수입금	15,900,000	19.1.미수입금	15,900,000
20.미수입금	72,000,000	20.1.미수입금	72,000,000
21.미수입금	4,726,000	21.1.미수입금	4,726,000
22.미수입금	629,895,459	22.1.미수입금	629,895,459
23.미수입금	115,811,628	23.1.미수입금	115,811,628
24.미수입금	2,080,836	24.1.미수입금	2,080,836
25.미수입금	2,260,836	25.1.미수입금	2,260,836
26.미수입금	44,598,875,118	26.1.미수입금	44,598,875,118
27.미수입금	27,507,154,198	27.1.미수입금	27,507,154,198
28.미수입금	5,266,246,802	28.1.미수입금	5,266,246,802
29.미수입금	3,464,000,000	29.1.미수입금	3,464,000,000
30.미수입금	169,936,439	30.1.미수입금	169,936,439
31.미수입금	14,879,891,843	31.1.미수입금	14,879,891,843
32.미수입금	28,988,800	32.1.미수입금	28,988,800
33.미수입금	99,320,877	33.1.미수입금	99,320,877
34.미수입금	1,314,599,640	34.1.미수입금	1,314,599,640
35.미수입금	1,700,000,000	35.1.미수입금	1,700,000,000
36.미수입금	6,901,429,284	36.1.미수입금	6,901,429,284
37.미수입금	8,508,452,000	37.1.미수입금	8,508,452,000
38.미수입금	73,000,000	38.1.미수입금	73,000,000
39.미수입금	93,870,000	39.1.미수입금	93,870,000
40.미수입금	36,508,276,682	40.1.미수입금	36,508,276,682
41.미수입금	1,100,000,000	41.1.미수입금	1,100,000,000
42.미수입금	1,000,000,000	42.1.미수입금	1,000,000,000
43.미수입금	7,138,401,881	43.1.미수입금	7,138,401,881
44.미수입금	7,138,401,881	44.1.미수입금	7,138,401,881
45.미수입금	7,138,401,881	45.1.미수입금	7,138,401,881
46.미수입금	7,138,401,881	46.1.미수입금	7,138,401,881
47.미수입금	7,138,401,881	47.1.미수입금	7,138,401,881
48.미수입금	7,138,401,881	48.1.미수입금	7,138,401,881
49.미수입금	7,138,401,881	49.1.미수입금	7,138,401,881
50.미수입금	7,138,401,881	50.1.미수입금	7,138,401,881
51.미수입금	7,138,401,881	51.1.미수입금	7,138,401,881
52.미수입금	7,138,401,881	52.1.미수입금	7,138,401,881
53.미수입금	7,138,401,881	53.1.미수입금	7,138,401,881
54.미수입금	7,138,401,881	54.1.미수입금	7,138,401,881
55.미수입금	7,138,401,881	55.1.미수입금	7,138,401,881
56.미수입금	7,138,401,881	56.1.미수입금	7,138,401,881
57.미수입금	7,138,401,881	57.1.미수입금	7,138,401,881
58.미수입금	7,138,401,881	58.1.미수입금	7,138,401,881
59.미수입금	7,138,401,881	59.1.미수입금	7,138,401,881
60.미수입금	7,138,401,881	60.1.미수입금	7,138,401,881
61.미수입금	7,138,401,881	61.1.미수입금	7,138,401,881
62.미수입금	7,138,401,881	62.1.미수입금	7,138,401,881
63.미수입금	7,138,401,881	63.1.미수입금	7,138,401,881
64.미수입금	7,138,401,881	64.1.미수입금	7,138,401,881
65.미수입금	7,138,401,881	65.1.미수입금	7,138,401,881
66.미수입금	7,138,401,881	66.1.미수입금	7,138,401,881
67.미수입금	7,138,401,881	67.1.미수입금	7,138,401,881
68.미수입금	7,138,401,881	68.1.미수입금	7,138,401,881
69.미수입금	7,138,401,881	69.1.미수입금	7,138,401,881
70.미수입금	7,138,401,881	70.1.미수입금	7,138,401,881
71.미수입금	7,138,401,881	71.1.미수입금	7,138,401,881
72.미수입금	7,138,401,881	72.1.미수입금	7,138,401,881
73.미수입금	7,138,401,881	73.1.미수입금	7,138,401,881
74.미수입금	7,138,401,881	74.1.미수입금	7,138,401,881
75.미수입금	7,138,401,881	75.1.미수입금	7,138,401,881
76.미수입금	7,138,401,881	76.1.미수입금	7,138,401,881
77.미수입금	7,138,401,881	77.1.미수입금	7,138,401,881
78.미수입금	7,138,401,881	78.1.미수입금	7,138,401,881
79.미수입금	7,138,401,881	79.1.미수입금	7,138,401,881
80.미수입금	7,138,401,881	80.1.미수입금	7,138,401,881
81.미수입금	7,138,401,881	81.1.미수입금	7,138,401,881
82.미수입금	7,138,401,881	82.1.미수입금	7,138,401,881
83.미수입금	7,138,401,881	83.1.미수입금	7,138,401,881
84.미수입금	7,138,401,881	84.1.미수입금	7,138,401,881
85.미수입금	7,138,401,881	85.1.미수입금	7,138,401,881
86.미수입금	7,138,401,881	86.1.미수입금	7,138,401,881
87.미수입금	7,138,401,881	87.1.미수입금	7,138,401,881
88.미수입금	7,138,401,881	88.1.미수입금	7,138,401,881
89.미수입금	7,138,401,881	89.1.미수입금	7,138,401,881
90.미수입금	7,138,401,881	90.1.미수입금	7,138,401,881
91.미수입금	7,138,401,881	91.1.미수입금	7,138,401,881
92.미수입금	7,138,401,881	92.1.미수입금	7,138,401,881
93.미수입금	7,138,401,881	93.1.미수입금	7,138,401,881
94.미수입금	7,138,401,881	94.1.미수입금	7,138,401,881
95.미수입금	7,138,401,881	95.1.미수입금	7,138,401,881
96.미수입금	7,138,401,881	96.1.미수입금	7,138,401,881
97.미수입금	7,138,401,881	97.1.미수입금	7,138,401,881
98.미수입금	7,138,401,881	98.1.미수입금	7,138,401,881
99.미수입금	7,138,401,881	99.1.미수입금	7,138,401,881
100.미수입금	7,138,401,881	100.1.미수입금	7,138,401,881
부채	1,000,000,000	부채	1,000,000,000
1.유동부채	1,000,000,000	1.유동부채	1,000,000,000
2.비유동부채	0	2.비유동부채	0
3.1.미수입금	1,000,000,000	3.1.미수입금	1,000,000,000
3.2.미수입금	0	3.2.미수입금	0
3.3.미수입금	0	3.3.미수입금	0
3.4.미수입금	0	3.4.미수입금	0
3.5.미수입금	0	3.5.미수입금	0
3.6.미수입금	0	3.6.미수입금	0
3.7.미수입금	0	3.7.미수입금	0
3.8.미수입금	0	3.8.미수입금	0
3.9.미수입금	0	3.9.미수입금	0
3.10.미수입금	0	3.10.미수입금	0
3.11.미수입금	0	3.11.미수입금	0
3.12.미수입금	0	3.12.미수입금	0
3.13.미수입금	0	3.13.미수입금	0